



500회 특집

“속물 토크로 궁금증 뱅~ 뚫어드려요”



‘무릎팍 도사’ 자투리 코너에서 예능 등용문으로 자리매김
9일 특집방송...원년 멤버 김희철·유세윤·이수근 등 출연

매주 수요일 밤에 방송되는 MBC TV ‘황금어장-라디오스타’(라디오스타)가 오는 9일 500회를 맞는다. 스튜디오 토크쇼인 ‘라디오스타’는 지상파 3사를 통틀어 평일 예능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무명에 가까운 연예인도 이곳에 얼굴을 비쳤다 하면, 단숨에 라디오 ‘스타’가 될 기회를 잡는다. 아심 차게 출발한 예능 프로그램도 단명하는 험난한 방송가에서 ‘라디오스타’가 500회까지 살아남은 비결은 무엇일까. ◇‘무릎팍 도사’ 결방살이서 대표 토크쇼로=‘라디오스타’가 지난 2007년 5월30일 ‘황금어장’ 코너로 첫선을 보일 때만 해도, 터줏대감 ‘무릎팍도사’의 결방살이 신세였다. 김구라와 윤종신, 신정환이 손잡은 ‘라디오스타’는 강호동이 이끄는 ‘무릎팍도사’가 끝나고 남는 자투리 시간에 배치됐다. ‘무릎팍도사’에 대단한 손님이라도 방문하는 날에는 평균 15~20분이던 ‘라디오스타’ 분량은 사정없이 쪼그라들었다. 2개월 만에 막 내린 직전 코너 ‘무월관’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던 ‘라디오스타’ 진행자들은 방송 때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제발~”이라는 인사를 잊지 않았다. 갑작스럽게 불거진 강호동 세금 문제로 ‘무릎팍도사’가 2011년 10월 결국 폐업한 것은 ‘라디오스타’에 큰 전환점이 됐다. ‘라디오스타’는 예의를 차리지 않는 토크쇼로서

본색을 드러냈다. 물리고 뜯기는 출연자로서는 당혹스러울 수 있지만, 시청자로서는 궁금증을 해소할 기회다. ‘라디오스타’ 황교진 PD는 “우리 프로그램이 차별화되는 지점은 ‘속물성’”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무릎팍도사’와 ‘라디오스타’ 모두를 연출한 황 PD는 지난해 11월 다시 ‘라디오스타’로 돌아왔다. “속물성이라고 하면 나쁜 것 같지만, 사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드러내지 않을 뿐이죠. 가령 ‘저 사람은 얼마 벌까’처럼, 사람들이 너무 궁금하지만 차마 묻지 못하는 것을, ‘라디오스타’는 솔직하고 당당하게 물어봐요.” 그 때문에 호불호가 명확히 갈려도 “라디오스타’의 근본적인 성격을 규정짓는” 김구라를 대체할 인물을 찾기란 쉽지 않다. 물론 ‘라디오스타’도 다른 장수 예능들처럼 신정환의 해외원정 도박, 김구라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폄하 발언, 유세윤의 음주 운전 자수 등으로 적잖이 갈림길에 섰다. 하지만 집단 진행 체제로 위기를 넘기면서 그 근본 성격은 잃지 않았다. 현재 ‘라디오스타’ 시청률은 크고 작은 등락 속에서도 평균 7.8%를 유지한다. 지난달 19일 김국진의 연인 강수지 등이 출연한 497회는 평균 시청률 10.4%(닐슨코리아)

를 기록했다. 프로그램의 인터넷 화제성도 MBC 간판 예능인 ‘무한도전’에 못지않다. 닐슨코리아와 CJ E&M이 매주 집계하는 콘텐츠영향력지수(CPI)에서도 ‘라디오스타’는 항상 10위 안팎을 오간다. ◇집단 진행 체제 안착...‘새싹’ 등용문=‘라디오스타’가 장수한 으뜸 비결은 조화로운 집단 진행 체제에 있다. ‘황금어장’ 초창기부터 함께한 윤종신과 김구라, 2007년 9월 슈퍼주니어 신동 대신 투입된 김국진, 2011년 입시직으로 합류한 규현까지 네 사람은 역할을 확실하게 분담했다. ‘북 치고 장구 치는’ 넷의 어우러짐 속에서 출연자들은 대중 걸만 훑고 가는 이야기가 아닌, 속내를 털어놓게 된다. 그러다 보니 방송만 하면 인터넷 연예 매체에서 반길 법한 기삿거리가 쏟아진다. 연예인으로서는 자기 존재를 확실히 알릴 수 있는 창구인 셈이다. ‘라디오스타’에 출연하면 같은 방송사의 ‘무한도전’을 시작으로 예능 프로에 줄이어 나가는 것이 공식이 됐다. 최근 ‘라디오스타’에서 입담과 장기를 뽐낸 한 중년 배우의 매니저는 “라디오스타’ 출연 이후 예능 프로 출연 제안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될 정도”라고 호소했다. 9일 방송되는 500회 특집에는 ‘라디오스타’ MC로 활약했던 슈퍼주니어 김희철과 유세윤, 강호동과 ‘무릎팍도사’를 함께했던 이수근, 올리비아랜드가 출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SNL코리아’ 최순실 게이트 통쾌한 패러디에 시청자 환호

방송가와 연예계에 번져가던 ‘최순실 게이트’ 패러디와 풍자가 tvN의 성인 코미디 프로그램 ‘SNL코리아’에서 정점을 찍었다. 지난 5일 밤 9시15분 생방송으로 전파를 탄 ‘SNL코리아 시즌8’에서는 코너마다 국정 농단 사태의 주역인 최순실 씨를 연상시키는 각종 에피소드를 선보여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게스트로 초청된 가수 솔비는 오프닝에서 현재 기분을 행위예술로 표현해달라는 MC 신동엽과 탁재훈의 요청을 받고 아련한 표정을 취하더니, 무슨 의미냐고 묻자 “이건 우주의 기운을 모으는 거예요”라고 답해 폭소를 자아냈다. ‘그리스로마신화’ 코너에서는 개그맨 유세윤이 승마복을 입은 켄타우루스(반인반마) 분장을 하고 등장해 “엄마 신발 한 짝을 찾으러 왔다”면서 “브라다(프라다)”를 연신 외쳤다. 제우스 역의 신동엽이 유세윤의 뺨을 때리며 알뜰하다고 하자 “우리 엄마가 누군지 몰라? 엄마 뺨도 능력인 거 몰라?”라며 최씨의 딸 정유라씨를 패러디했다. 건강이 우려된다던 최씨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고통한 그릇을 비웠다는 것도 풍자의 대상이 됐다. ‘이웃 2016vs1980’ 코너에서는 배우 김민교가 흰색 블라우스와 머리에 선글라스를 올린 최씨를 흉내 낸 모습으로 등장해 방청객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김민교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죄송해요”라며 최씨가 검찰 출두 직후 한 말을 패러디하고, ‘프라도’(프라다) 신발이 벗겨져 당황해하더니 곱탕을 먹고 가라는 말에 반색하는 연기를 하기도 했다. 탁재훈은 “답답한 국민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풀어줬으면 좋겠다. 모조리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는 검찰 조사 결과를 바라고 간절히 기대한다”는 말로 매듭을 지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결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연애나 봄날>	10 KBC 모닝와이드 3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00 SBS 뉴스 40 SBS 생활경제 50 KBC 생활뉴스
11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00 월화드라마 <우리집에 사는 남자>(재)	0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TV블로그 꿈지락 05 토크콘서트 화통 55 닥터 365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 뉴스 20 통일 전망대	00 SBS 12 뉴스 30 KBC 12뉴스 50 TV블로그 꿈지락 55 열린공간 토크 Talk (재)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재) 05 KBS네트워크특선 방송의 전설 55 별별가족(재)	00 이웃집 찰스 (재)	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재)	55 닥터 365
2	00 2016 전국 학교스포츠클럽대회	00 KBS 뉴스타임 10 사람과 사람들	00 키즈 사이언스 6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재)
3	20 대식가들(재) 55 토크생활제초	00 자정공부책상 위키 2 30 TV유치원	00 MBC 뉴스 10 토크? 토크! 키즈스쿨 55 깨미탐험대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25 MBC 일일특별기획 <위강림 육아대디>(재)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 특공대(재)	00 MBC이브닝 뉴스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독 30 SBS 뉴스 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향건강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SBS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25 별난 가족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MBC 일일특별기획 <위강림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우리집에 사는 남자>	00 월화 특별기획 <캐리어를 끄는 여자>	00 월화드라마 <남만닥터 김사부>
11	00 KBS 뉴스라인 40 네트워크 특선다큐 <순수를 빛다, 계룡산 철화분청>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테마기획 길	10 꽃놀이패
12	30 인간극장 스페셜 (재)	35 비바 K리그	10 MBC 뉴스24 35 MBC스포츠투 2016 MBC+ 마이러 서울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EBS에 생활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동시베리아의 첫출 <레나강 철나의 여름> 06:00 한국기행 06:20 세계테마기행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 마루의 어드벤처 07:30 로보카 폴리 07:45 꼬마버스 타요 08:00 덩동당 유치원 1~2 08:45 부릉!부릉! 브루미즈 09:00 방귀대장 똥뽕이 09:15 출동! 슈퍼핑크	09:30 이말! 스페이스 정글 09:40 부모-위대한 엄마 10:30 한국기행 (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순두부찌개와 북어포 무침>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산다 12:40 지식채널 e 12:45 EBS 스페셜 프로젝트 13:40 즐겨찾 수확 EBS MATH 13:50 그림을 그려요(2) 13:55 시계마을 티키토!	14:25 허풍선이 과학쇼 14:55 모피와 친구들 15:05 피터 래빗 15:20 우주탐험가 젯 15:35 요술 상자(2) 15:45 출동! 슈퍼핑크 16:15 방귀대장 똥뽕이(재) 16:30 부릉!부릉! 브루미즈(재) 16:45 덩동당 유치원 1~2(재) 17:30 로보카 폴리(재) 17:45 꼬마버스 타요(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너스1~4 19:00 강철소방대 파이아로보 19:30 EBS 뉴스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체코문화기행 1부 천 년의 도시를 거닐다, 프라하> 21:30 한국기행 <질척냈습니다 김장> 21:50 EBS 다큐 프라임 <극한의 땅 1부 다니엘의 소금 카라반> 22:45 달라졌어요 23:35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24:05 세상의 모든 범죄 24:10 EBS 특별기획 통찰(洞察)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7일(음 10월 8일 癸巳)			
子	48년생 약조권이 오히려 화재를 부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60년생 사소한 일이라면 대범하게 넘어가자. 72년생 수호가 늘면서 다방면으로 복작해지는 양태가 된다. 84년생 소통하는 과정에서 생산성이 배가되리라. 행운의 숫자 : 33, 08	午	42년생 현명하게 차신해야 할 일이다. 54년생 목표에 근접하고는 있으나 상당한 변수가 있다. 66년생 지나치다면 낭패를 보게 될 것임에 뻔하다. 78년생 어떠한 일이 발생하든지 간에 평소의 마음을 유지하라. 행운의 숫자 : 36, 11
丑	49년생 여러 가지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맹점을 드러낼 수 있다. 61년생 일상적이려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라. 73년생 이미 짜진 구도이니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으리라. 85년생 적절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안정 궤도를 달린다. 행운의 숫자 : 28, 60	未	43년생 인간은 겪어 봐야 알고 물은 건너봐야 아느니라. 55년생 대응하는 방법과 강도에 따라 천차만별한 것이다. 67년생 갑자가 급변하여 매우 놀랄 수도 있느니라. 79년생 머지않아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리라. 행운의 숫자 : 80, 59
寅	50년생 돈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가 나게 되어 있다. 62년생 기초가 부실하면 사상누각이 되는 법이다. 74년생 희망의 빛이 점점 가까이 비추오는 형국이다. 86년생 신경 쓰고 싶지 않겠지만 스트레스 좀 받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4, 37	申	44년생 내일의 발전을 위해 오늘의 불편은 감수하자. 56년생 과거에서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계획과 설계를 해야겠다. 68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되어야 국면을 타개할 수 있다. 80년생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해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63, 75
卯	51년생 임시적인 조처에 그친다면 많은 손해를 불러들인다. 63년생 최근이 될 수 있으니 신속한 단속이 절실하다. 75년생 몸매 뺀 약실 때문에 황당한 경우가 생기는 형상이다. 87년생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2, 39	酉	45년생 신경 쓰지 않으면 결필될 수도 있다. 57년생 원인을 파악한 후에 근본적인 대처를 해야만 한다. 69년생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니 마음을 가다듬고 자제하는 것이 낫다. 81년생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5, 07
辰	40년생 아무리 굴리해도 답이 나오지 않게 되어 있다. 52년생 기반이 조성되겠다. 64년생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법이다. 76년생 지금의 판도로서는 무의미하다. 88년생 행운의 문이 열리게 되는 마당이다. 행운의 숫자 : 32, 30	戌	46년생 상호의 관계가 중요하다. 58년생 한계를 벗어난다면 중차대한 단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 70년생 소홀해 해 왔던 점이 없지는 살펴 볼 일이다. 82년생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만 본인은 정작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54, 74
巳	41년생 힘이 되어 줄 것이다. 53년생 진전이 있다. 65년생 객관적 타당성만이 소기의 성과를 낳으리라. 77년생 행운의 별이 비취오고 있으니 길하리라. 89년생 외부적 요건에 구애받지 말고 의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81, 43	亥	47년생 굳이 내심을 드러낼 필요는 없으니 알고만 있으면 된다. 59년생 실속 있는 것이 유익하다. 71년생 돌이킬 수 없는 길은 가지 않음이 백번 나을 것이다. 83년생 대단한 의미가 있게 될 것이니 명심하라. 행운의 숫자 : 71, 97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